

# 신채호의 고대사 기술에 사용된 언어학적 방법론 검토\*

— 『조선사연구초』와 『조선상고사』를 중심으로 —

김병문\*\*

##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신채호의 고대사 기술과 한국어 계통론의 관계
3. '이두식' 한자 해석법 - 고대사 기술의 새로운 열쇠, 혹은 '위험한 장난'
4. 나가는 말

## 【국문초록】

신채호는 '국문을 쓸 것이냐 한문을 쓸 것이냐' 하는 문제를 '주인이 될 것이냐 노예가 될 것이냐'의 문제로 파악하고, 한문으로 된 중국의 역사서만을 읽은 탓에 우리가 '국수(國粹)'와 '국혼(國魂)'을 잃어버렸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가 추구할 역사 서술의 방향은 중국과 한문에 오염되기 이전의 조선의 고유한 정신을 회복하여 중국에는 정신적인 노예 상태를 벗어나 주인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었다. 중국과 한문으로 인해 오염되기 이전의 조선만의 고유성을 찾으려는 노력은 그러나 그가 접할 수 있는 사료 자체가 모두 한문으로 씌어진 것뿐이라는 사실 때문에 처음부터 큰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 1920년대 중반 이후 신채호는 고대사에 등장하는 인명이나 지명, 국명, 관직명 등을 모두 '이두식'으로 해석하는 방법론을 도입하게 된다. 한자를 한자로 읽지 않고 그것을 통해 한자 이전의 고유어를 복원해 내는 방식이다. 그리고 그러한 방법론은 당시에 활발하게 논의되던 한국어의 계통론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조선상고사』(1931)가 『독사신론』

\* 이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6A3A01079581)

\*\*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 HK교수

(1908)과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언어학적 방법론의 사용이었던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신채호가 『조선상고사』와 『조선사연구초』와 같은 특히 1920년대 중반 이후의 역사 서술에서 언어학적 방법론을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하였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가 활용한 언어학적 방법론은 한국어 계통론에 기반을 둔 것과 신채호 특유의 ‘이두식’ 한자 해석법을 활용한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 각각이 당대 혹은 후대의 한국어 연구와 어떠한 연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역시 검토의 대상으로 삼겠다.

[주제어] 신채호, 『조선상고사』, 『조선사연구초』, 고대사, 이두, 한국어 계통론, 언어학적 방법론, 국문, 한문

## 1. 들어가는 말

신채호는 1908년 3월 『국한문의 경중(輕重)』이라는 글을 『대한매일신보』에 3회에 걸쳐 연재한다. 물론 국문과 한문의 우열을 가리거나 그 각각의 손익(損益)이 어떠한지를 따지는 논의는 근대계몽기 내내 지속되었던 것으로서 신채호의 이 글 역시 그와 같은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동서양의 ‘문명개화’ 정도가 서로 다른 이유를 알파벳과 한자라는 문자의 속성에서 찾는가 하면, 글자 습득의 어렵고 쉬움의 차이가 어디서 기인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는 무엇인지를 꼼꼼히 따지는 등 1890년대 후반에서 1910년에 이르는 시기까지 ‘국문론’이라 부를 수 있는 ‘국문’ 관련 논의들이 그야말로 백출한다.

그러나 1905~1906년 어간에서 그러한 논의들의 성격이 일정하게 변화를 맞게 되는데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어떤 문자를 선택할 것이냐’에서 ‘어떤 식의 문장을 적을 것인가’하는 문제로 논의의 중심이 이동한다는 사실이고,<sup>1)</sup> 다른 하나는 국문과 한문을 현실적인 이익과 손해의 관점에서 접근하던 이전의 논리와는 달리 이를 민족적인 정체성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는 글들이 급격히 많아진다는 점이다.<sup>2)</sup> 앞서 언급한 신채호의 『국한문의 경중(輕重)』은

1) 문장 작법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신채호, 『문법을 의(宜)통일』, 『기호총학회보』 5, 1908.12.25. 이 바로 이와 같은 흐름에 있는 글이라고 하겠다.

2) 근대계몽기 국문 담론의 변화 양상에 대해서는 김병문, 『들리지 않는 소리, 혹은 발설되지 않는

1905년 이후부터 보이는 ‘국문론’의 두 가지 변화 양상 가운데 후자에 속하는 글이다. 즉 그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문과 한문의 선택의 문제를 ‘주인이 될 것인가 노예가 될 것인가’를 가르는 문제로 치환하고 있다.

大抵 記者의 論은 漢文弊害라 혹은 其 佞屈贅牙를 非 혹은 童習支離  
를 歎 혹은 아니라 蓋 其 一出一入 一主一奴의 中間에 多大 혹은 害가 有 혹은 否노라.<sup>3)</sup>

즉 신채호가 생각하는 한문의 폐단이란 문장이 난삽하여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동이 습득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데 있는 것도 아니다. 그보다는 한자가 주인 되고 노예 됨의 문제에 관계된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로 한문의 유입에 따라 ‘국수(國粹)’와 ‘국혼(國魂)’을 잃어버린 우리의 역사를 거론하고 있다. 즉 삼국시대에는 수당의 강한 군대를 격퇴하고 왜적의 거듭된 침략을 물리쳤거늘, 고려와 조선 이래로는 몽고가 쳐들어오매 고개를 숙이고 만주족이 들이닥치자 다시 머리를 숙인 것은 무슨 까닭이냐며 따져 묻는다. 물론 이에 대한 신채호의 대답은 바로 한문의 유입 여부가 그 차이를 가른다는 것이다. 삼국 이전에는 한문이 성행하지 않아서 온 나라의 사람이 자국만 존중하고 자국만 사랑했던 데에 비해, 삼국시대 이후로는 집집마다 한문책을 쌓아놓고 한문만 읽더니 나라의 정신과 혼을 잃어버리고 중국을 ‘대송’, ‘대명’이라 부르며 조선을 오히려 속국으로 여기는 노예의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다.<sup>4)</sup>

말과 ‘국어’의 구상-근대개봉기 국문 담론 분석, 『국어의 사상’을 넘어선다는 것에 대하여』, 소명출판, 2019 및 김병문, 『근대개봉기 ‘국문론’의 양상과 새로운 주체 형성의 문제에 대하여』, 『어문연구』 47,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9 참조.

- 3) 신채호, 『국한문의 경중(輕重)』, 『대한매일신보』 1908. 3.17. 사실 이 글에는 필자가 명기되어 있지는 않으나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 그 내용이나 문체 등을 근거로 신채호의 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간행의 『단체신채호전집』 제6권에서도 이 글의 필자를 신채호로 인정하고 있다.
- 4) “三國以前에는 漢文이 未盛行 혹은 야 全國人心이 自國만 尊 혹은 하며 自國만 愛 혹은 하고 支那가 雖나 我的 仇敵으로 常視 혹은 야 … 三國 以後로는 幾乎家家에 漢文을 儲 혹은 하며 人人이 漢文을 讀 혹은 야 漢官威儀로 國粹를 埋沒 혹은 하며 漢土風教에 國魂을 輸送 혹은 야 言必稱 大宋 大明 大清이라 혹은 堂堂大朝鮮을

물론 예컨대 ‘한문을 폐지하고 국문을 쓰는 것은 학생들을 짐승을 만드는 일’이라며 상소한 학부대신 신기선에게 ‘청국 황제를 그리 섬기고 싶으면 청국으로 가 버리라’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독립신문』(1896.6.4.)의 잡보 기사처럼 근대계몽기 ‘국문론’은 처음부터 국문과 한문의 대립을 내 것과 남의 것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문이 아니라 국문을 써야 한다는 주된 논리는 대체로 현실적인 손해와 이익을 따지는 데 있었고 그것을 국가 혹은 민족적 고유 사상이나 정신의 문제로까지 끌어올리는 일은 좀체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던 것이 1905년 이후의 글들에서는 말과 글의 문제를 ‘국시(國是)’, ‘국가사상’ 등에까지 연결하는 경우가 발견되고 국어와 국문의 성쇠는 바로 국가의 흥망과 필연적인 연관 관계를 맺는 것으로 인식된다.<sup>5)</sup> 그리고 신채호는 앞서 언급한 『국한문의 경중』에서 한문으로 된 중국의 역사책만을 읽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국수(國粹)’와 ‘국혼(國魂)’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했다고 역설하고 있다.<sup>6)</sup>

여러 논자들에 의해 지적된 바와 같이 신채호는 특히 고대사를 전통적인 시각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해 낸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예컨대 『독사신문』(1908)에서 ‘동국 역사’의 ‘주종족’을 북방의 ‘부여족’으로 설정하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는 물론 전통적으로 인정되던 ‘단군-기자(箕子)-위만’ 혹은 ‘단군-기자-삼한(마한)’의 계보를 거부한 것인데, 특히 단군을 직접적으로 계승한 나라가 기자조선이 아니라 부여, 그리고 그 뒤를 잇는 고구려라는 것이 그 핵심이다.<sup>7)</sup> 주지하다시피 한말 유교 지식인들은 대

他國의 附庸屬國으로 反認함으로 奴性이 充滿함야 奴境에 長陷함야거늘” 신채호, 『국한문의 경중(輕重)』, 『대한매일신보』 1908.3.18.

5) 이와 같은 면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글로는 주시경, 『必尙自國文言』, 『황성신문』, 1907.4.1.~6. 및 박태서, 『국어유지론』, 『야외』 1, 1907.2.5. 등을 들 수 있다.

6) “嗚呼라. 此其原因을 推究함면 韓國의 國文이 晚出함으로 其 勢力을 漢文에 被奪함야 一般 學士들이 漢文으로 國文을 代함며 漢史로 國史를 代함야 國家思想을 剝滅함 所以라. 聖哉여. 麗太祖 | 云함시되 我國風氣가 漢土와 迥異함니 華風을 苟同함이 不可라 함심은 國粹保存의 大主義이시거늘 幾百年庸奴拙婢가 此 家事를 誤함야 小國二字로 自卑함야도다.” 신채호, 『국한문의 경중(輕重)』, 『대한매일신보』 1908.3.18.

7) 신채호의 고대사 이해, 역사 연구의 배경 등에 대해서는 주로 이만열, 『단재 신채호의 역사학 연구』, 문학과지성사, 1990을 참조하였다.

체로 단군을 종족적 기원 정도로만 파악하고, 문화적 기원은 기자에서 찾았다. 『황성신문』의 창간호(1898.9.5.) 『사설』에서 단군 시절에는 아직 인문(人文)이 열리지 않았으나 기자가 비로소 인민을 교화하였고 따라서 이 땅에 처음으로 오신 기자 성인이 주신 문자(한문)와 선왕께서 창제하신 문자(국문)을 함께 쓰지 않을 수 없다며 국한문 혼용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대목은 당대 단군과 기자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국문과 한문의 대립을 주인 됄과 노예 됄의 문제로 파악하고, 한문으로 된 중국의 역사서에 빠져 ‘국수’와 ‘국혼’을 잃어버렸다고 보는 신채호가 추구할 역사 서술의 방향은 물론 자명하다. 중국과 한문에 오염되기 이전의 조선의 고유한 정신을 회복하여 중국에는 정신적인 노예 상태를 벗어나 주인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바로 그의 역사 서술이 지향하는 바였을 것이다. 그의 역사 연구가 고대사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 역시 바로 거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부여와 고구려를 중심에 놓고 고대사를 재편하는 『독사신론』의 시도는 물론 그 첫걸음이었다. 중국과 한문으로 인해 오염되기 이전의 조선만의 고유성을 찾으려는 노력은 그러나 그가 접할 수 있는 사료 자체가 모두 한문으로 씌어진 것뿐이라는 사실 때문에 처음부터 큰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 1920년대 중반 이후 신채호는 고대사에 등장하는 인명이나 지명, 국명, 관직명 등을 모두 ‘이두식’으로 해석하는 방법론을 도입하게 된다. 한자를 한자로 읽지 않고 그것을 통해 한자 이전의 고유어를 복원해 내는 방식이다. 그리고 그러한 방법론은 당시에 활발하게 논의되던 한국어의 계통론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sup>8)</sup> 『조선상고사』(1931)가 『독사신론』과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언어학적 방법론의 사용이었던 것이다.

이 글에서는 신채호가 『조선상고사』와 『조선사연구초』와 같은 특히 1920년대 중반 이후의 역사 서술에서 언어학적 방법론을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하

8) 이와 비슷한 시기 최남선 역시 한자로 표기된 각종의 고유명사를 해석하여 고대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시도 역시 한국어 계통론과 대단히 밀접한 연관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김병문, 『최남선의 「不韋文化論」을 통해 본 고대사 만들기와의 역사비교 언어학의 관계』, 『대동문화연구』 110, 대동문화연구원, 2020 참조.

였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가 활용한 언어학적 방법론은 한국어 계통론에 기반을 둔 것과 신채호 특유의 ‘이두식’<sup>9)</sup> 한자 해석법을 활용한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 각각이 당대 혹은 후대의 한국어 연구와 어떠한 연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역시 검토의 대상으로 삼겠다.

## 2. 신채호의 고대사 기술과 한국어 계통론의 관계

대체로 1920년대 중반 이후 신채호의 역사 연구는 그 전 시기와는 여러 모로 구별되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는데, 그의 역사 관련 주요 저술이 집중되는 이 시기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객관적인 사료 비판과 고증의 강조이다.<sup>10)</sup> 그리고 그러한 경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저술이 바로 『조선사연구초』이다. 1924년 10월에서 1925년 3월에 이르기까지 『동아일보』에 장기 연재된 이 글 가운데 『고사상 이두문 명사 해석법』과 같은 것은 앞서 언급한 대로 각종의 사서에 등장하는 인명이나 지명, 국명, 관직명을 한자 그대로 읽을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대개 고유어를 ‘이두식’으로

9) ‘이두(吏讀)’는 넓은 의미로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고유어를 적는 차자(借字) 표기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나, 현재 한국어학계에서는 대체로 이두문에 사용된 차자 표기만을 ‘이두’로 부르는데 이때의 이두는 대개 조사나 어미에 해당하는 문법 형태소를 한자로 적은 것이다. 따라서 신채호가 사용하는 ‘이두’라는 용어는 전자의 넓은 의미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현재 통용되는 한국어학계 일반의 용법과는 차이가 있다.

10) 이만열은 신채호의 역사 연구를 1기 1905~1910년, 2기 1910~1923년, 3기 1923~1936년으로 나누고, 3기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사료 비판과 실증성을 들고 있다. 즉 “근대 역사학이 가장 중요시한 사료 비판과 실증면에 있어서 그 이론적 수준이 근대 사학의 수준”이라면서 “이때에 와서 객관적인 역사과학의 단계로 진입”하였다는 것이다.(이만열, 앞의 책, 47쪽.) 실제로 그의 역사 저술이 과연 근대 역사학의 수준에 도달했는지의 여부와는 별도로 다음과 같은 신채호의 언급은 그가 객관 사실만을 기록해야 한다는 근대 역사학의 기본 전제에 동의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歷史는 歷史를 爲하여 歷史를 지으란 것이요, 歷史 以外에 무삼 目的을 爲하여 지으라는 것이 아니요. 詳言하자면 客觀的으로 社會의 流動狀態와 거긔서 發生한 事實을 그대로 적는 것이 歷史요, 著作者의 目的을 爲하여 그 事實을 左右하거나 添附 或 變改하라는 것이 아니니 … 由來 朝鮮에 歷史라 할 朝鮮史가 있섯다냐 하면 首肯하기 어렵다.” 신채호, 『조선상고사』, 단재신채호전집편찬위원회 편, 『단재신채호전집』 제1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604쪽. 이하 신채호의 저술에 대한 인용은 이 전집을 기준으로 하되 편이상 전집에 대한 다른 서지 사항은 생략하고 전집의 권수와 쪽수만을 표시하기로 한다.

적은 것이라는 전제 아래 한자로 표기되기 이전 원래의 고유어를 해독해 내는 방법을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조선상고사』에서 새롭게 제시되는 역사 서술은 바로 그와 같은 새로운 방법론에 입각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신채호의 이러한 해석법에 대해서는 본고의 3장에서 다시 다루겠거니와, 여기서는 그러한 방법론이 당대에 알려져 있던 한국어 계통론과 상당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예컨대 『조선사연구초』에 실려 있는 또 다른 글인 「삼국지 동이열전 교정」에는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韓傳에는 ‘邑借’란 官名이 있고, 弁辰傳에는 ‘借邑’이라는 官名이 있는바, 兩者 중 一은 반드시 倒寫한 字일지니 何者가 倒寫인가? … 日本人 白鳥庫吉은 鬻子族의 말에 使者를 ‘일치’라 함에 據하여 晉書 肅慎傳의 ‘乙力支’를 ‘일치’로 解한바 邑借는 그 음이 ‘일치’와 비슷하니 또한 使者의 義가 될지며, 高句麗 官名의 ‘鬱折’도 또한 ‘일치’인 듯하니 弁辰傳의 ‘借邑’은 곧 ‘邑借’의 倒載일 것이다.<sup>11)</sup>

중국의 역사서에 나타나는 조선 관련 기록에는 허다한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아야 역사적 실체에 온전히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신채호의 입장이고, 그러한 맥락에서 『삼국지』 「동이열전」에 나타나는 “顛倒, 訛誤, 脫落, 增疊된 字句를 校正”한 6가지 사례 가운데 하나가 위에서 보인 내용이다. 즉 「변진전」에서는 ‘借邑’이라하고 「한전」에서는 ‘邑借’라고 하니 이 둘 중 어느 하나는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가 통구스어의 ‘일치’를 근거로 『진서』 「숙신전」의 ‘乙力支’를 ‘일치’로 해석한 것을 따라 「변진전」의 ‘借邑’은 ‘邑借’의 오류이며 고구려의 관직명 ‘鬱折’ 역시 ‘일치’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눈에 띄는 점은 신채호가 『삼국지』를 교정하며 시라토리를 인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라토리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그의 동양학 연구에서 ‘우랄 알타이어’계통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인물이다.<sup>12)</sup> 신채호가 여기서 시라토리를 인용하여 자신

11) 신채호, 『삼국지 동이열전 교정』, 『단체신채호전집』 제2권, 2007, 348쪽.

12) 시라토리의 동양학에서 언어학적 방법론이 차지하는 위치, 단군 연구 및 남북 이원론이 의미하는

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결정적인 근거 역시 계통론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즉 통구스어의 ‘일치’라는 어휘가 속신을 거쳐 삼한 시대와 고구려 때 불렀던 관직명의 소리와 의미를 재구하는 데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통구스어와 한국어가 하나의 계통을 이룬다는 것, 다시 말해 이들이 하나의 공통 조어(祖語)로부터 갈라져 나온 말이라는 전제가 있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다.

신채호의 ‘이두식’ 한자 해석법이 한국어 계통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은 그의 『조선상고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 책의 총론 ‘제4장 사료의 수집과 선택에 대한 상각(商榷)’에서는 ‘이두식’으로 표기된 각종의 한자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적 문제에 대한 서술과 함께 몽고, 만주, 터키 제 민족의 언어와 풍속을 연구해야 함을 역설하고 자신이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 내력을 구구히 설명하고 있다.<sup>13)</sup> 처음에는 『사기』 ‘흉노전’을 읽으며 정치 제도나 관직명 등 기타 여러 면에서 우리와 유사한 점을 발견하고 조선과 흉노가 3천 년 전에는 ‘일실(一室) 내의 한 형제가 아니었는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는 것인데, 그 뒤에 건륭제 때의 『滿洲源流考』, 『遼金元 三史國語解』 등을 통해 ‘朱蒙’이 ‘善射’라는 의미의 만주어 ‘주립물’에, ‘沃沮’가 ‘森林’의 뜻을 가지는 만주어 ‘와지’에 해당하며, 삼한의 관직명 끝에 붙는 ‘支’가 몽고어 ‘말치[馬官]나 ‘활치[羊官] 등의 ‘치’와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동몽고의 승려로부터 동몽고의 동서남북 명칭을 물으니 『고려사』에서 ‘동부왈 순나(順那), 서부왈 연나(涓那), 남부왈 관나(灌那), 북부왈 절나(絶那)’라 한 것과 같음을 알았으며 더 나아가 조선 만주 몽고 터키 네 종족 사이에는 현재에도 일치하는 어휘가 수십 종에 이룬다는 도리이 류조(鳥居龍藏)의 조사 발표를 확인하고 나서 조선어, 만주어, 몽골어, 터키어가 ‘동어계(同語系)’라는 ‘억단(臆斷)’을 내렸다는 것이다.<sup>14)</sup>

바 등에 대해서는 스테판 다나카, 박영재 합동주 옮김, 『일본 동양학의 구조』, 문학과지성사, 2004, 123~159쪽 참조.

13) 신채호, 『조선상고사』, 『단체신채호전집』 제1권, 2007, 621~622쪽

14) 신채호가 구체적으로 도리이 류조의 어떤 글을 참조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최남선의 『살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고대사 사료에 등장하는 ‘이두식’ 한자 표기에 대한 신채호의 해석이 기본적으로는 ‘우랄-알타이 어족’을 전제하는 한국어 계통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우랄-알타이 어족’이라는 언어학적 가설은 그러나 한자로 표시된 고유명사나 관직명의 해석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다. 조선어, 만주어, 몽골어, 터키어가 ‘동어계(同語係)’라는 ‘제1보(第一步)’를 기반으로 하여 신채호는 중국의 이십사사(二十四史)에서 발견되는 선비와 흉노에 관한 기록, 그리고 흉노의 일부가 터키 헝가리로 이주하였다는 서양사의 내용 등을 참조한 결과 조선, 만주, 몽골, 터키 네 종족이 ‘동혈족(同血族)’이라는 ‘제2보(第二步)’를 내딛게 된다.<sup>15)</sup> 말의 근친성이 그대로 종족적 근친성으로 연결되는 것인데, 이는 곧 조선사 기술의 대상이 될 조선 민족의 근원이 바로 한국어의 계통론으로부터 도출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바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상고사』 ‘제2편 수두시대’의 맨 처음 부분 ‘조선 민족의 구별’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 즉 고대 아시아 동부의 종족이 하나는 ‘울알어족’이고 다른 하나는 ‘지나어족’이니 ‘조선족, 흉노족’이 전자, ‘한족, 묘족, 요족(瑤族)’이 후자에 속하며, ‘조선족’이 분화하여 ‘조선, 선비, 여진, 몽고, 퉁구쓰’가 되고 ‘흉노족’은 ‘돌궐, 흉아리(匈牙利), 토이기(土耳其), 분란(芬蘭)’ 등이 되었다는 게 신채호의 설명이다.<sup>16)</sup> ‘역사란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이 시간부터 발전하며 공간부터 확대하는 활동의 기록’이라는 『조선상고사』의 저 유명한 명제가 조선사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조선 민족이라는 ‘아’의 단위가 확정되어야 함은 물론일 터, 그 과정에서 바로 ‘울알어족’을 출발점으로 하는 한국어의 계통론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조선어를 ‘우랄 알타이’ 어족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신채호의 이와 같은 계통론적 인식은 당시에 이미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던 것이기도 하다.

---

만교차기』(1927)에서 도리어 류조의 인류학적 조사를 크게 참조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고대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도리어의 글이 잘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5) 신채호, 앞의 책, 622쪽.

16) 신채호, 앞의 책, 632쪽.

비(非)인도-유럽어족의 언어들에 대한 서양인들의 관심은 유라시아 대륙의 여러 언어들을 ‘타타르 제어, 스키타이 어군, 투란 제어, 알타이 어군’ 등의 명칭을 통해 분류하고 이들 언어에서 인도-유럽어족과 대비되는 문법적 특성을 발견해 내기도 하였다. 19세기 중반 이후 주로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검토되기 시작한 한국어 계통론 역시 그와 같은 맥락에 놓여 있었는데, 호머 힐버트 같은 이는 투란계 언어를 사용하는 종족 일부가 인도의 남부에 정착하고 이들이 다시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반도의 남부로 이주했다며 한국어와 드라비다어와의 동계설을 주장하기도 하였다.<sup>17)</sup> 1900년 전후까지도 여러 논의가 정리되지 못하고 다양하게 전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컨대 제임스 스콧은 한국어에 대한 당시로는 수준 높은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 *English-Korean Dictionary*(1891)의 『서설』에서 한국어가 어느 어족에 속하느냐 하는 문제는 답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라며 우랄알타이 어족에 속한다느니 드라비다 어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느니 하는 주장들은 모두 확실히 증명된 것이 아닌 하나의 주장일 뿐이라고 설명한다.<sup>18)</sup>

그러던 것이 1910년대 중반 이후가 되면 한국어의 ‘우랄-알타이’ 어족설이 상당한 세력을 얻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조선문학사』(1922)의 ‘부편(附編)’으로 실린 『조선어 원론』에서 안확은 본격적으로 ‘조선어의 계통’을 논하고 있는데, ‘종족적 계통상으로’ 세계 2,400여 종의 언어를 분류하면 ‘생쓰크리트어족, 우랄알타이어족, 단음어족, 남양어족, 세미틱어족, 하미틱어족, 남인도어족’ 등으로 나뉘고 조선어는 일본어, 헝가리어, 몽골어, 터키어 등과 더불어 ‘우랄알타이 어족’에 속한다는 것이다.<sup>19)</sup> 그리고 이 어

17) 20세기 초까지의 서양인들에 의한 한국어 계통론에 대해서는 송기중, 『역사비교언어학과 국어계통론』, 집문당, 2004, 59~82쪽 참조.

18) 1892년~1899년에 발간된 *The Korean Repository*와 1901년~1906년에 발간된 *The Korean Review*에 나타난 서양인들의 한국어 인식을 검토한 이상혁, 『근대 초기 영문 잡지에 나타난 서양인의 ‘조선어’ 인식에 대하여 - *The Korean Repository, The Korean Review*를 중심으로』, 『한국인물사연구』 25, 한국인물사연구회, 2016에 따르면 이 잡지가 발간되던 시기가까지는 여전히 북방설과 남방설이 각축을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 안확, 『조선어 원론』, 『조선문학사』, 한일서점, 1922, 215~223쪽. 안확은 일본 유학 시절 이미 ‘우랄 알타이’ 어족설을 접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절 그가 쓴 『조선어의 가치』, 『학지광』 3호, 1915.2에는 그가 『조선어 원론』에서 제시한 조선어 계통론의 기본 내용이 거의 그대로 나타난다.

족에 속한다는 각 언어에 대한 설명을 단편적으로나마 서술하고 이와 비교하여 조선어의 음운 및 문법적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안확 스스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까지 ‘외인(外人)들’의 연구만 있었을 뿐 조선인에 의한 조선어 계통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형편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만한 정도의 계통론도 당시로는 그 가치를 인정할 만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조선어의 계통을 논한 것으로 안확이 거론한 ‘외인’ 중에는 몇몇 서양인 외에도 가나자와 쇼사부로(金澤庄三郎)와 시라토리 구라키치가 포함되어 있다. 가나자와의 『日韓兩國語同系論』(1910)과 시라토리의 『朝鮮語とUral-Aitai語の比較研究』(1914~1916)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채호도 언급한 시라토리의 ‘우랄 알타이’ 어족설은 한국어의 계통에 관심을 두고 있던 여러 논자들에게 중요한 참조점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어 어휘 595개를 선정하여 이들 각각을 터키어, 몽골어, 만주어 등과 비교하여 유사한 어형을 제시한 시라토리의 위의 논문은 한국어의 계통을 규명하려는 당시의 여러 논의들 가운데 가장 치밀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들은 위에서 언급한 한국어 계통론들이 대부분 인종적 종족적 기원에 관한 논의와 직접적으로 연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헐버트의 소위 남방설이 인도 남부에서부터 건너온 종족의 존재를 전제하는 것임은 물론이고 스콧의 신중한 한국어 계통론 역시 “한국인과 한국어는 어떤 민족과 어족에 속하는가?”라는 제목 아래에 기술되어 있다. 스콧이 한국어의 언어적 특징과 더불어 한국인의 신체적 특성을 만주족과 일본인과의 비교를 통해 다루고 있는 것은 물론 조선어를 사용하는 이들의 종족적 기원을 추측하기 위함이다. 안확의 조선어 계통론 역시 언어의 ‘문법상’의 특질보다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종족적 계통’을 우선하고 있으며,<sup>20)</sup> 가나자와와 시라토리의 계통론 역시 그 출발은 언어학이나 역사학이나 하는 점에서 달랐지만, 결국 언어의 계통과 민족의 기원이나 변천 등에 관한 논의가 밀접하게

다만 이 글에는 가나자와는 언급되지만 시라토리는 언급되지 않는다.

20) ‘종족적 계통’을 기준으로 하는 것 외에도 안확은 ‘문법상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고립어, 교착어, 굴절어’와 같은 분류 체계도 제시하고 있다.

결부되어 있었다는 점에서는 일치하는 면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sup>21)</sup>

신채호가 『조선상고사』에서 ‘아(我)’의 단위를 확정하는 데 ‘우랄알타이어족’이라는 언어학적 가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당대의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한문으로 기록된 기존의 사료들이 도달할 수 없는 고대사의 실체에 접근하는 것을 과제로 삼았던 그로서는 언어의 계통을 통해 민족의 기원을 소급하는 작업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신채호는 ‘아’의 단위를 확정하는 문제에서만큼이나 ‘비아(非我)’와의 투쟁 과정을 통한 ‘아’의 ‘시간적 발전’과 ‘공간적 확대’의 과정을 기술해 나가는 데에서도 한자 기록 이전의 조선 고유어를 복구해 내는 작업을 적극 활용했다. 예컨대 『조선상고사』 ‘제2편 수두시대’의 내용 가운데 앞서 언급한 ‘조선 민족의 구별’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조선족의 동래(東來)’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신채호는 “조선족이 최초로 서방 파밀 고원 혹은 몽고 등지에서 광명의 본원지를 차차 동방으로” 이동하여 ‘불함산(不咸山)’, 곧 지금의 백두산을 “광명신(光明神)의 서숙소(棲宿所)로 알아 그 부근의 토지를 조선이라 칭”하였다는 것인데, 광명의 본원지를 찾아 동으로 동으로 이동하여 드디어 ‘조선’에 도달했다는 이 민족적 서사의 근거로 신채호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한자를 통해 해석해 냈다고 하는 조선의 고대 어휘들뿐이었다.

즉 “우리의 고어로써 참조하면 왕성(王姓)을 해(解)라 함은 태양에서 뜻을 취함이고 왕호(王號)를 불구레(弗矩內)라 함은 태양의 광휘에서 뜻을 취함이고 천국(天國)을 환국(桓國)이라 함은 광명에서 뜻을 취함이니” 이것으로부터 조선 민족이 광명을 찾아 동으로 동으로 이주해 온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왕의 성이 ‘해’이고 그 칭호를 ‘불구레’라 했다는 것은 ‘해모수’와 ‘해부루’, 또는 ‘혁거세’를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이고,<sup>22)</sup> 천국을 ‘환국(桓國)’이

21) 한국어의 계통 연구가 민족의 기원 문제와 결부되는 것은 한국어 계통론의 초기 단계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니다. 예컨대 계통 연구가 상당한 정도로 축적된 1980년대에 간행된 김방한의 『한국어의 계통』 제1장은 ‘한국 민족과 선사문화’라는 절로부터 시작하고 그 소절의 제목은 ‘한국민족과 한국어’, ‘한국민족의 기원과 형성’, ‘한국민족의 형성과 고아시아족’, ‘고아시아족과 그 언어’ 등이다. 김방한, 『한국어의 계통』, 민음사, 1993, 11~18쪽.

라 했다는 대목은 단군신화의 ‘환인, 환웅’의 ‘환’을 의식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중요한 것은 신체호가 한자로 표기된 어휘들을 원래 조선의 고대어로 복원해 내고 그것들을 통해 민족의 시원을 밝혀내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광명 신의 숙소라고 생각한 불함산 근처의 땅을 일컫는 말이었다는 ‘조선’ 역시 “고어(古語)의 광명이란 뜻이니” ‘朝鮮’은 이 고유어를 후세에 ‘이두자’로 쓴 것에 불과하다고 적고 있다.

이른바 ‘이두식’으로 표기된 한자를 통해 조선 고유의 고대어를 복원하고 이를 이용하여 고대사의 실체에 접근하겠다는 발상은 사실 『조선상고사』 전체에 걸쳐 적용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테면 ‘조선족의 동래’에 뒤이어 ‘조선족의 분포한 아리라’, ‘조선 최초 개척한 부여’의 제목 아래에 기술된 내용은 동으로 이주하던 조선족이 대대로 ‘아리라’라 불리던 큰 강을 만나면 그 주변에 정착하였고 인근의 들판을 개척하여 ‘불’을 형성하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 ‘아리라’와 ‘불’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고대사 복원의 중요 과제가 될 터이다. ‘이두식’ 한자 표기를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한 신체호에 따르면 현재의 압록강, 대동강, 두만강, 한강, 낙동강은 물론이고 송화강, 요하 등이 바로 ‘아리라’이고<sup>22)</sup> 고대의 각종 지명에서 보이는 ‘夫餘, 夫里, 不耐, 不而, 國內, 弗, 伐, 發’ 등이 바로 ‘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가운데 송화강이 조선족 최초의 ‘아리라’이며 그곳을 근거로 하여 처음으로 개척한 ‘불’이 ‘하얼빈’이고 바로 여기서 조선 문화의 원시 ‘수두(蘇塗)’가 발원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랄-알타이’ 어족이라는 언어학적 가설을 기반으로 하여 출발한 ‘야’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이 신체호의 바람대로 ‘객관적으로 사실 그 자체를 적은’ 것이 될는지, 혹은 ‘위험한 장난’에 빠지게 될지는 이제 ‘이두식’ 한자 해석법의 적절성 여부에 달려게 되는 셈이다.

22) 『삼국유사』 「기이」편에는 ‘혁거세왕’을 혹 ‘弗矩內王’이라고도 하며 이는 광명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이라는 기록이 보인다. “或作 弗矩內王 言光明理世也”(『삼국유사』 권1)

23) 이러한 강들의 ‘이두식’ 표기가 각종 문헌에 ‘阿禮江, 阿利水, 郁利河, 烏列河, 列水, 武列河, 鴨子河’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때 ‘阿禮, 阿利, 烏列, 武列’ 등은 다 ‘아리’의 음역(音譯)이고, ‘鴨子’는 ‘아리’의 의역(意譯)이며, ‘江, 河, 水’는 다 ‘라’의 의역(意譯)이라는 게 신체호의 해석이다. 신체호, 앞의 책, 632~633쪽.

### 3. ‘이두식’ 한자 해석법 - 고대사 기술의 새로운 열쇠, 혹은 ‘위험한 장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채호는 1924년 10월에서 1925년 3월까지 『동아일보』에 ‘조선사연구초’를 연재하는데 여기에 새로운 글들을 더해 1929년에는 같은 제목의 단행본을 간행한다. 그런데 이 단행본에 실린 6편의 글들은, 나름의 체계를 갖추어 이루어진 『조선상고사』의 고대사 기술에 앞서 한국어 계통론을 전제로 한 ‘이두식’ 한자어 해석법을 단편적으로 시도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 중 한편인 『삼국지 동이열전 교정』이 중국 사서에 나타나는 조선 관련 기록의 잘못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언어학적 방법론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은 앞서도 언급한 바 있거니와, 『평양패수고』에서는 각종의 역사서에 등장하는 ‘平壤, 平那, 卞那, 白牙, 樂浪, 樂良, 溟水, 溟江, 溟河’ 등이 모두 ‘펴라’라는 고유어 지명을 한자로 표기하기 위하여 그 음을 빌려 쓴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하는데,<sup>24)</sup> 이러한 해석이 문제적인 이유는 이를 바탕으로 ‘평양=낭량’이 현재의 위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삼국시대 이전에는 만주에 있었다는 이른바 ‘지명이동설’로 이어지게 되고, 당연히 이러한 해석은 한사군의 위치 비정 문제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또 『전후삼한고』에서는 『사기』 『조선열전』의 “自始全燕時 嘗略屬眞番朝鮮”이라는 구절과 ‘眞番’에 대한 서광(徐廣)의 “一作莫”이라는 주(註)를 근거로 ‘眞·番·莫’의 3조선이 있었고 이때의 ‘眞, 番, 莫’은 진한, 변한, 마한의 ‘辰, 弁, 馬’와 같은 것으로서 이들은 모두 고유어인 ‘신, 불, 말’을 표기한 ‘이두식’ 한자에 다름 아니라고 설명한다. 이는 물론 단군 시대에 이미 북방에 전(前) 삼한이 있었고 이 삼한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한반도 남쪽의 후(後) 삼한으로 이어진다는 『조선상고사』 특유의 고대사 체계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

24) 이렇게 해석한 이유를 신채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 ‘平壤, 平那, 卞那, 白牙’ 등은 모두 그 음의 초성을 읽어 ‘펴라’가 되며, 2) ‘樂浪, 樂良’은 ‘樂’의 뜻인 ‘풍류’의 초성을 읽고 ‘浪, 良’의 음인 ‘랑’의 초성과 중성을 읽어 ‘펴라’가 되며, 3) ‘溟水, 溟江, 溟河’는 ‘溟’의 음인 ‘페’의 초성을 읽고, ‘水, 江, 河’의 뜻인 ‘라’의 전음(全音)을 읽어 ‘펴라’가 된다. 신채호, 『평양패수고』, 『조선사연구초』, 『단체신채호전집』 2권, 2007, 355쪽.

밖에도 『삼국사기 중 동서(東西) 양자(兩字) 상환(相換) 고증』(연재 제목: ‘고사상(古史上) 동서 양자 박구인 실증’)에서는 우리 역사서 가운데 ‘동(東)’과 ‘서(西)’를 뒤바꾸어 기술한 기록이 많은데 이는 우연한 착오가 아니라, 지금은 동서남북에 해당하는 방위 명칭이 고유어로는 남아 있지 않지만 고대어에서 동쪽을 ‘시’, 서쪽을 ‘한’이라 하였으므로<sup>25)</sup> 한자를 이용해 ‘이두자’를 만들 때 ‘시’를 ‘西’로 적고 그 대신 ‘한’을 ‘東’으로 적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하나같이 이른바 ‘이두식’으로 표기된 한자를 고유어로 복원하여 조선 고대사를 다시 쓰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글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은 『조선상고사』에서 하나의 체계를 갖추어 나타난다는 점에서 볼 때 『조선사연구초』에 실린 「고사상 이두문 명사 해석법」<sup>26)</sup>의 의미는 각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바로 이 글에서 신채호는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이두식’ 한자 표기의 해석이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일정한 방법론에 입각한 것임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사상 이두문 명사 해석법」의 서두에서 신채호는 이른바 ‘이두식’ 한자 표기의 올바른 해석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이것을 통해서만이 비로소 역사 서술의 착오가 교정되고 해당 시대의 본색이 드러나며 산실(散失)된 조선 역사상의 대사건이 발견되므로 “이것이 곳 地中古蹟을 發掘함에 비길 만한 朝鮮史研究의 秘鑰이니라.”고 강조하고 있다.<sup>27)</sup> 그리고 나서 ‘고구려’가 ‘깨고리’에서 왔다거나(이덕무), ‘위례성’은 ‘울’, 즉 ‘위리(圍籬)’에서 온 말(정약용)이라는 따위의 설명이 아무런 근거 없이 단지 비슷한 음을 취하여 무단으로 내린 결론이라고 비난하며 자신이 정리한 ‘이두식’ 한자의 올바른 해석 방법을 아래와 같이 여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그 첫 번째는 ‘본문의 자증(自證)’이니 해당 역사서의 자체 내용을 통해 해석이 가능한 경우이다. 예컨대 『삼국사기』에서 ‘角干’을 일명 ‘舒弗邯, 舒發韓’이라고 한다고 하였으니 이때의 ‘角’은 ‘舒弗, 舒發’에 대응하고 ‘干’은

25) 이렇게 본 근거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으나, 고유어로 동풍이 ‘셋바람’(‘시바람’), 서풍이 ‘하늬바람’인 것을 염두에 둔 해석으로 보인다.

26) 동아일보 연재 시의 제목은 「이두문 명사 해석법-고사상 국명·관명·지명 등」이다.

27) 신채호, 「고사상 이두문 명사 해석법」, 『조선사연구초』, 『단재신채호전집』 2권, 2007, 331쪽.

‘邯, 韓’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舒弗, 舒發’은 ‘쇠뿔’이라는 소리를, ‘邯, 韓’은 ‘한’의 소리를 적은 것이므로 ‘角干’은 우리말 ‘쇠뿔한’을 한자로 표기한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본문의 지증’에 해당하는 또 다른 예로는 역시 『삼국사기』에서 ‘異斯夫’를 일명 ‘뫼宗’이라 하고 ‘居柒夫’를 일명 ‘荒宗’이라 했으니 ‘異斯’는 ‘뫼’에 대응되어 ‘이사’로<sup>28)</sup> ‘居柒’은 ‘荒’에 대응되니 ‘거찰’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해당 고유어의 소리와 의미를 다 알 수 있는 경우는 비교적 그 해석에 큰 이견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이다. 신채호가 제시한 두 번째 해석법은 ‘동류의 방증(傍證)’이란 것인데, 비슷한 유형의 것들을 모두 모아서 해당 한자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명에 자주 보이는 ‘忽’이 곧 ‘골’인가의 의문은 ‘彌鄒忽, 述爾忽, 比列忽, 冬比忽’ 등 모든 ‘忽’의 동류를 얻은 후에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같은 계열의 어휘들을 모아 거기에 포함된 동일 형태의 의미를 해석한다는 것이므로 이 역시 특별히 이론이 제기되기 어려운 것이다.

세 번째 해석법은 ‘전명(前名)의 역증(遡證)’인데, 옛 명칭을 통해 현재의 이름을 해석해 내는 방법이다. 황해도 ‘구월산’의 옛 명칭이 ‘弓忽’이고 또 일명 ‘劍牟縣’, ‘窮牟縣’이라고도 한다는 사실을 들어 ‘弓’과 ‘劍牟=窮牟’가 대응하는 것으로 보고 ‘弓忽’을 ‘굼골’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신채호는 이를 토대로 ‘구월산’을 단군의 ‘阿斯達’에 연결시키려는 시도를 비난하고 있다. 즉 ‘구월산’의 ‘구’를 ‘아사’(아홉)에, ‘월’을 ‘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이들이 있는데, ‘阿斯’는 ‘앗, 엇, 아쓰, 어쓰’ 등으로는 몰라도 도저히 ‘아홉’으로는 읽을 수 없으며, ‘達’ 역시 각종 지명을 참조했을 때 ‘산’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sup>29)</sup> 이 역시 지금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대체로 합리적인 해석이라 하겠다.

28) 실제로 중세 한국어에서 ‘이끼’는 ‘잇’, 혹은 ‘잇’으로 나타나는데, 신채호 역시 『조선상고사』에서는 『훈몽자회』에서 ‘뫼’의 훈을 ‘잇’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신채호, 『조선상고사』, 『단체 신채호전집』 1권, 2007, 617쪽.

29) 이회승 역시 『삼국사기』 지리지 등의 지명을 근거로 ‘達’이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 ‘山’ 혹은 ‘高’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이회승, 『지명연구의 필요』, 『한글』 1-2, 조선어학회, 1932, 45-49쪽



신체호가 제시한 네 번째 해석법은 ‘후명(後名)의 연증(沿證)’이라는 것으로서 후대의 이름을 통해 원래의 명칭을 밝히는 방법이다. 신체호에 따르면 『삼국지』의 삼한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볼 때 제관(諸官)을 다 ‘智’라하고 그 중 지위가 높은 대관(大官)은 ‘臣智, 臣雲遣支’라 하였는데, 특히 이때의 ‘臣雲遣支’를 고구려의 ‘太大兄’, 신라의 ‘上大等’을 통해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당시에 종주(宗主)되는 나라를 ‘辰國’, 작은 왕을 관할하는 보다 상위의 왕을 ‘辰王’ 등으로 적은 것을 근거로 하여 ‘臣=辰’은 ‘太, 上, 總, 第一’ 등의 의미라는 전제 아래 ‘臣雲遣支’의 ‘遣’은 ‘太大兄’과 ‘上大等’의 ‘大’에 대응하는 ‘크(다)’로 해석할 수 있고 결국 첩자(疊字)로 보이는 ‘雲’을 제외하면<sup>30)</sup> ‘臣遣支’는 ‘신크치’가 된다는 것이다. 즉, ‘臣遣支’는 ‘신크치’의 음을, ‘太大兄, 上大等’은 그 뜻을 적은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런 해석의 근거로 그는 원나라 태조 ‘成吉思汗’의 ‘成吉’이 ‘최대’라는 뜻의 몽고어 ‘싱크’에 해당함을 들고 있다. 즉 몽고어 ‘싱크’를 통해 조선의 고어 ‘신크’의 존재를 증명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나 이러한 대응이 규칙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상 그가 음성상의 단편적인 유사성만을 가지고 무단한 결론을 내렸다면 이덕무와 정약용의 어원설에 가한 비판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두식’ 한자 표기의 해석 방법의 다섯 번째로 신체호가 제시하는 것은 ‘동명이자(同名異字)의 호증(互證)’이다. 『평양패수고』에 대한 언급에서 본 바와 같이 ‘平壤, 平那, 卞那, 白牙, 樂浪, 樂良, 溟水, 溟江, 溟河’ 등은 모두 ‘펴라’라는 동일한 명칭을 서로 다른 한자로 적은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거니와 ‘동명이자의 호증’이란 이와 같아 하나의 이름에 여러 다른 한자가 대응되는 것을 밝혀내는 방식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대목은 ‘穰, 壤’이 어떻게 ‘라’가 되는가에 대한 그의 설명이다. 신체호는 『훈민정음』의 “△如穰字初發聲” 규정을 근거로 ‘穰’이 ‘상’임을, 그리고 『노걸대』와 『박통사언해』의 ‘북경화(北京話)’를 근거로 이 ‘△’이 ‘르’에 가까운 음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주시경이 ‘△’을 ‘르’와 ‘ㅎ’의 합음’이라고 설명한 내용과 일치하는 내

30) “‘臣雲遣支’의 ‘雲’은 下文의 臣雲新國의 雲을 여기에 疊載한 者니, 雲字를 畵고 ‘신크치’로 讀함이 가하며” 신체호, 『고사상 이두문 명사 해석법』, 『조선사연구초』, 『단체신체호전집』 2권, 2007, 335쪽.

용이기도 하다.<sup>31)</sup> 신채호가 주시경의 ‘△’에 대한 음가 추정을 참조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sup>32)</sup> 『훈민정음』의 자모 배열순서(ㄱ-ㅋ-ㅇ, ㄷ-ㅌ-ㄴ, ㅂ-ㅍ-ㅁ, ㄹ-△)를 근거로 한 주시경의 이런 해석이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그 타당성을 전혀 인정받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平壤’의 ‘壤’이 ‘라’라는 소리를 적기 위한 것이라는 신채호의 주장 역시 언어학적으로는 수긍하기가 어려운 주장이다.<sup>33)</sup>

신채호가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이두문’ 명사 해석 방법은 ‘이신동명(異身同名)의 분증(分證)’인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의 송화강, 요하, 압록강, 대동강, 두만강, 한강, 낙동강 등이 모두 애초에는 ‘아리라’라고 불렀던 것이니 그러한 사실을 각각 증명해 내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때 사용된 구체적 방법은 예를 들어 송화강의 옛 이름 중에 ‘鴨子河’가 있으니 이때의 ‘鴨’이 ‘으리’를 표기하기 위해 사용된 한자라는 식이다. 이 경우가 한자의 뜻을 빌려 이두식으로 적은 것이라면<sup>34)</sup> ‘아리수(阿利水), 오열강(烏列江), 옥

31) 주시경이 ‘△’를 ‘ㄹ’과 ‘ㅎ’의 합음으로 설명한 것은 『훈민정음』 예의를 본 직후인 『국문강의』(1906)부터이고 『국어문전음학』(1908)에서는 이러한 설명이 더 강화된다 그 직전의 저술인 『국문문법』(1905)에서는 ‘ㅅ’과 ‘ㅇ’의 합음으로 보고 있었다.

32) 신채호와 주시경이 자신들의 저술이나 연구에서 서로를 참조한 흔적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가정잡지』 2차분(1908.1~1908.8) 발간에 각각 편집 겸 발행인과 교보원으로 참여한 만큼 이 둘 사이에 일정한 교분이 있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33) ‘△’이 ‘ㄹ’에 가까운 음이라는 추정에 근거해서 ‘平壤’을 ‘퍼라’로 복원해 내는 것이 언어학적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운 주장임이 분명하나 조재형, 『고조선 지명 ‘溟水’에 대한 고찰』, 『지명학』 26, 한국지명학회, 2017, 273~270쪽에서 보는 바와 같이 ‘平壤’을 ‘퍼라’로 해독하는 신채호의 독법은 여전히 일정한 지지를 받고 있다. 통구스 제어에서 ‘강(江)’을 뜻하는 말들이 ‘벨라, 뽀라, 뽀알라’ 등으로 나타나는데 고대국어 시기의 음운 체계나 음절 구조 등을 고려하면 이들이 ‘벼라, 비라, 빌라’ 등으로 재구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와 같은 음성 형식이 ‘평천(平川)=별내=별천(伐川)’과 같은 지명에서 확인된다는 점, ‘平壤’의 별칭이 ‘平那’인 점 등이 그 근거로 제시되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을 받아들여더라도 ‘平壤’의 ‘壤’이 어떤 이유에서 ‘라’로 해독될 수 있는 것인지가 해명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더구나 신채호가 ‘불/밭’을 ‘아리라’ 주위의 큰 들판을 뜻하는 것이라고 본 데에 비해 위의 설명은 이에 해당하는 요소가 강이나 하천을 뜻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34) 『조선상고사』에서는 ‘鴨子’가 ‘아리’의 ‘의역(意譯)’이라며 고어에서는 ‘오리’를 ‘아리’라고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신채호, 『조선상고사』, 『단체신채호전집』 1권, 2007, 632~633쪽. 그러나 중세 한국어에서 ‘오리’는 ‘아리가 아니라 ‘올히’로 나타난다. 신채호가 무엇을 근거로 ‘오리’의 고어가 ‘아리’라고 했는지는 알기 어렵다. 아울러 그가 『조선사연구초』에서 ‘으리’로 일관되게 표기하던 것을 『조선상고사』에서 ‘아리’로 적은 것이 본인의 수정인지, 신문사에서의 교정 등에 의한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리하(郁里河)와 같은 것들은 ‘으리’의 음을 취한 표기라는 것인데, ‘으리’의 ‘으’가 ‘아, 오, 우’ 세 음의 ‘간음(間音)’인 고로 ‘阿, 烏, 郁’ 등의 여러 방식의 취음(取音)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물론 ‘으’가 ‘아, 오, 우’의 ‘간음’이라는 설명 역시 지금의 언어학적 관점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하나, 비슷한 시기 최남선이 『불함문화론』에서 동방문화의 근원을 밝혀줄 열쇠로 ‘불’을 지목하고 이때의 ‘으’가 ‘지극히 선명치 못한 모음’이라 여러 모음으로 ‘전변(轉變)’될 수 있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의 설명이라 하겠다.<sup>35)</sup>

신채호가 제시한 이상의 여섯 가지 ‘이두문 명사 해석법’은 하나의 기본적인 전제를 공유하고 있다. 즉 우리말 고유어를 한자로 표기할 때는 한자의 음을 이용할 수도, 훈을 이용할 수도 있으니 이를 어떻게 가려내어 적절하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그것을 위해 해당 역사서 내에 있는 자체의 내용을 이용하거나(‘본문의 자증’) 유사한 계열 어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동류의 방증’), 전대나 후대의 명칭을 활용하여 증명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전명의 역증’, ‘후명의 연증’).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는 동일한 명칭이 여러 다른 한자로 표기되는 경우도 있고(‘동명 이자의 호증’), 또 서로 다른 여러 대상에 동일한 명칭을 부여한 경우도 있으니(‘이신동명의 분증’) 이들을 세심하게 분류하여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세심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도 ‘居柒夫 感云 荒宗’와 같이 음과 훈이 동시에 대응되어 제시되지 않는 한 그 해석은 추정의 영역에 속할 수밖에 없다. 물론 계열 관계를 이루는 여러 어휘들을 비교하는 것은 그 해석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주요한 방법이 되겠지만, 특히 신채호 자신이 지적한 대로 단편적인 유사성에 근거한 추정은 그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신채호가 『조선사연구초』나 『조선상고사』를 집필하는 당대에 그 만큼 이 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했던 이는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다. 비록 신채호에 앞서 최남선이 『계고차존』에서 예컨대 ‘마한(馬韓)’의 ‘馬’가

35) 최남선, 전성근 옮김, 『불함문화론, 살만교차기』, 경인문화사, 2013, 21쪽 참조.

‘마리(首), 마루(宗), 맏(長上, 伯兄)’의 뜻이라고 하는 등<sup>36)</sup> 한자로 표기된 고대의 지명 등을 고유어로 해석하여 고대사를 새롭게 해석하려고 시도한 바가 있었으나 신채호만큼 전면적인 것도 아니었을 뿐더러 그 해석 방법을 체계화하려고 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한 사정은 언어학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이회승은 1932년 『한글』에 발표한 「지명 연구의 필요」라는 글에서 조선어의 역사적 연구를 위해서는 지명 연구가 반드시 필요함을 지적하면서도 ‘북부 조선’에서는 ‘산’을 ‘달(達)’이라 했단든지 한자 ‘貫’로 표기된 것들은 ‘川, 水, 井’ 등의 의미를 갖는다든지 하는 단편적 해석에 그쳤을 뿐이다. 다만, 이 글은 지명 연구가 언어학적으로 어떠한 의의를 지니고 있는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특기할 만하다. 즉 한자를 사용한 기록을 포함하더라도 조선어의 문헌 시대는, “朝鮮語라는 한 獨立한 語族이 처음으로 成立한 時代부터” 오늘날까지의 긴 세월에 비하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조선어 연구는 결코 문헌 자료에만 의지할 수 없는데, 그때 제기될 수 있는 자료가 바로 구비로 전승되는 가요, 전설, 속담 등과 무당의 푸념, 방언, 지명 같은 것들이며 특히 이 가운데 지명은 “古語를 가장 忠實히 또 豊富히 우리에게 提供”한다는 것이다.<sup>37)</sup>

「이두문 명사 해석법」으로 대표되는 신채호의 언어학적 방법론이 당대에 어떠한 평가를 받았는지를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이는 아마도 당시에는 한자를 사용한 차자 표기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라고 할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오히려 신채호나 최남선 등이 시도한 지명, 인명 등에 대한 해석이 이후 언어학 연구자들에게 비판적인 검토의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 아닌가 한다. 예컨대 「『삼국사기』의 지명고」(1949)라는 논문에서 김형규는 지금까지 한자로 표기된 지명을 고대의 고유어로 복원하는 과정에서 각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에 적합한 예 한두 가지씩 단편적으로만 이용하다 보니 오히려 전반적인 지명 해석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우선 『삼국사기』의 지명을 정밀히 검토하여 거기서 ‘불변의 원리 원칙’을 세워야 한다

36) 최남선, 『계고차존』, 『청춘』 14호, 1918.6.16., 42쪽.

37) 이회승, 앞의 글, 46~47쪽.

고 주장한다.<sup>38)</sup>

그러나 한자를 빌려 적은 고대의 고유어를 해석하는 데 언어학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한 것은 이승녕의 『신라 시대의 표기법 체계에 대한 시론』(1955)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sup>39)</sup> 이 논문은 신라 시대 한자를 사용한 고유어의 표기 체계를 이른바 ‘1자 1음주의’에 입각하여 분석했는데 즉, 지명과 인명, 향가에서 사용된 한자를 분석하여 특정한 음절 혹은 음은 특정한 한자 몇 가지로 표기되었다는 것을 음절별 대응표를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보인 것이다. 하나의 고유어가 여러 가지 한자로 표기된다든지 한 개의 한자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던 이전의 방법론을 비판한 것인데,<sup>40)</sup> 신체호 역시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이승녕의 이런 방법론은 이후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sup>41)</sup> 그리고 용어상으로는 ‘이두’라는 표현이 조선 시대 이후의 것이므로 이를 삼국시대까지 소급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이승녕의 지적 역시, 현재 한국어학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대체로 ‘차자(借字) 표기’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정확한 것이었다고 하겠다.

한자 표기의 고유어 복원을 통한 역사학계 일각의 고대사 기술에 대해 가장 신랄한 비판을 가한 언어학자는 아마도 이기문인 듯하다. 그는 『삼국사기』의 사료적 가치를 논하는 진단학회의 토론회 자리에서 고대의 고유명사 표기법에는 한자의 음만을 취하여 표기한 방법과 의미만을 취하여 표기한 방법 두 가지가 있으며 전자를 음독 표기, 후자를 석독 표기라 할 때 언어학자는

38) 김형규는 경덕왕 때의 지명 변경에서 공동되는 특정 세 가지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1) 신지명에는 글자의 수가 정해져 있다. (‘州’앞에는 1자, ‘郡’이나 ‘縣’ 앞에는 2자) 2) 글자는 대체로 ‘아름다운 뜻’을 가진 자로 변경되었다. 3) 구지명은 한자를 표음문자식으로, 신지명은 표의문자식으로 사용했다. 김형규, 『삼국사기』의 지명고, 『진단학보』 16, 진단학회, 1949, 172~175쪽.

39) 『서울대학교 논문집』 2권에 실렸던 이 논문은 1972년 같은 제목의 단행본으로 탑출판사에 간행되었다. 본고는 1972년의 단행본을 참조했다.

40) “1자의 독법을 십여 종으로 읽고 그 때 그 때 異種의 해석을 내리고 음을 규정한다 함은 여하히 호의로 생각한다 하여도 시인할 수 없는 노릇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1자 1음절 또는 1자 1음주의를 고집함이 정당한 태도라고 본다.” 이승녕, 『신라 시대의 표기법 체계에 대한 시론』, 탑출판사, 1972, 162쪽.

41) “선생님의 연구는 세부적인 면에서 새로이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없지 않지만, 일차일음주의로 대표되는 차자표기법에 대한 연구 태도는 엄밀한 방법론에 입각한 연구를 강조한 것이어서 길이 잇어서는 안 될 우리의 좌우명이다.” 남풍현, 『심약 이승녕 선생의 차자표기 자료 연구』, 『이승녕 현대국어학의 개척자』, 태학사, 2008, 349~350쪽.

음독과 석독 표기를 아울러 가진 것들에 대해서만 어원론을 시도하는 데에 비해, 역사학자들은 음독 표기나 석독 표기 어느 하나만이 있는 경우에도 어원론을 전개하다 보니 그런 시도는 자연 ‘위험한 장난’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소리의 요소와 의미의 요소를 아울러 지니고 있는 언어의 특성상 한 면만으로는 그 실체를 규명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위험한 장난’의 예로 든 것이 이병도의 ‘阿斯(達)=아츰=あざ’, 최남선의 ‘檀君=tengri’에 관한 설이었다.<sup>42)</sup> 결국 신채호가 제시한 여서 가지 해석법 가운데 첫 번째인 ‘본문의 자증’ 외에는 ‘위험한 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인데 이러한 견해는 현재까지도 고대 지명의 해석에 관한 언어학 쪽의 기본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sup>43)</sup>

#### 4. 나가는 말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신채호가 1920년대 이후 새로운 고대사 기술을 시도하면서 사용한 주요 방법론 가운데 하나는 한국어 계통론을 전제로 하는 ‘이두식’ 한자 해석법이였다.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 계통론에 관해서는 신채호가 대체로 당대의 언어학적 성과를 인식하고 그 기반 위에서 자신의 논지를 펼쳐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채호가 『조선상고사』를 집필하던 당대에는 인명이나 지명, 또는 관직명 등의 한자어를 통해 고유어를 복원해 내는 언어학적 방법론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sup>44)</sup> 오히려 신채호와 최남선 같은 이들

42) 이기문, 『언어 자료로서 본 『삼국사기』』, 『진단학보』 38, 1974, 211~216쪽.

43) “어휘표기는 문장표기와 달리 훈차 표기와 음차 표기가 병렬되어 있을 때에만 자료의 신빙성이 높아진다. … 어휘표기에서는 훈차 표기와 음차 표기의 어느 하나만 나타날 때에는 그 표기가 훈차와 음차 중에서 어느 것을 이용한 표기인지 확인할 수가 없다. 따라서 어휘표기의 경우에는 두 가지 표기 방법이 모두 적용된 예들만을 골라서 제시하여야만 단어의 의미와 음상을 모두 갖추어 알 수 있다.” 이승재, 『차자표기의 변화』, 국어사연구회, 『국어사연구』, 태학사, 1997, 218~219쪽

44) 인명, 지명, 관직명 같은 어휘 표기가 아니라 향가에 사용된 향찰은 문장 표기라는 점에서 구별되거나 한자를 이용한 차자 표기라는 점에서 공통되는 면이 있다. 小倉進平, 『郷歌及び吏讀の研究』, 경성제국대학, 1929; 양주동, 『고가연구』, 박문서관, 1942 등이 향가에 대한 초기 연구의 중요한 성과

이 고대사 기술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한 한자 해석법이 고대 한국어의 역사를 복원하려는 언어학자들에게 일정한 자극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 계통론이 그간 국내외 많은 학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과 달리, 차자 표기법 연구는 고려 시대의 각종 자료를 통해 상당한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신체호의 '이두식' 한자 해석법이 지금의 언어학적 검증을 온전히 견뎌낸다는 것은 물론 무리한 일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의 그러한 성과가 신체호의 '이두식' 한자 해석법을 비롯한 초기의 다양한 시도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만큼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의 한자 해석법에 대해 엄정한 칼날을 들이대는 앞서의 언어학자들과 신체호와의 사이에는 단순한 방법론상의 견해차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가 하나 있었다. 즉 앞서의 언어 연구자들이 대체로 '고구려어'가 남쪽의 '신라어'와 상당한 정도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가정하고 더 나아가 현재의 한국어 형성에 '고구려어'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sup>45)</sup> 물론 이는 부여와 고구려를 단군의 계통을 있는 조선사의 주된 흐름으로 보는 신체호의 고대사 인식과는 크게 구별되는 것이다. 남한 언어학의 이러한 면모를 일본학자들의 '일선동조론'과 연관된 것으로 몰아붙이는 북쪽 언어학계의 거센 비난도 있거니와<sup>46)</sup> 사실 한국어 계통의 확정은 고사하고 삼국시대의 언어조차 그 실체를 온전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

---

인데 특히 양주동은 한자에 의한 차자 표기를 음독과 훈독, 음차와 훈차로 구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남풍현, 『차자표기법연구』, 단대출판부, 1981; 박재민, 『항가 해독 100년의 연구사 및 전망』, 『한국사가연구』 45, 한국사가학회, 2018 참조. 항가 해독과 고대어 및 고대사 기술과의 관련성은 별도의 논의를 기약하기로 한다.

45) 이기문은 신라어 같이 한반도 남부에서 통용되던 말을 한계(韓系) 언어로, 고구려어는 부여, 옥저, 예 등에서 사용되던 말과 더불어 부여계로 구분하는데, 그 가운데 중세 및 현대 한국어의 형성에 중심이 된 것은 신라어라고 보고 사멸한 고구려어가 통구스 제어와 더욱 가까운 관계에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한국어 및 일본어와 알타이 제어와의 관계가 증명되지 않는 것 역시 그 사이의 '고려' 역할을 해 주었을 고구려어가 문헌상으로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기문, 『국어사개설(개정판)』, 탑출판사, 1972, 29~32쪽 및 이기문, 『한국어형성사』, 삼성미술문화재단, 1981, 112~113쪽 참조. 김형규 역시 앞서 언급한 『삼국사기』의 지명고에서 고구려어와 신라어의 차이에 대해 이기문과 유사한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

46) 김수경, 『세나라시기 언어력사에 관한 남조선학계의 견해에 대한 비판적 고찰』, 1989.

고 있는 것이 한국어 역사 연구의 실상인바, 신리어 중심의 한국어 형성론 역시 아직까지는 가설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라 하겠다. 물론 그러한 가설의 실상을 규명하는 것은 긴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신채호의 ‘고구려 중심설’을 포함하여 남과 북의 그러한 고대사 혹은 고대어 관련 각종의 가설들이 제출되었던 사회 역사적인 맥락이나 배경을 규명하는 작업일 수 있다.<sup>47)</sup> 그에 대한 진지한 성찰 없이는 ‘국수’와 ‘국혼’을 필요로 했던 ‘신채호의 시대’를 넘어서는 일은 불가능한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

47) 이성시, 박경희 옮김, 『투쟁의 장으로서의 고대사』, 삼인, 2019 등에서 제기한 것과 같이 만약 고대사 자체가 근대 국민국가의 ‘육망’이 투여된 ‘투쟁의 장’이라면, 근대 이후 제출된 다양한 고대어 관련 가설 역시 당대의 사회 역사적 조건과 무관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 참고문헌

- 박태서, 『국어유지론』, 『아뢰』 1, 1907.2.5.
- 신체호, 『국한문의 경중(輕重)』, 『대한매일신보』 1908.3.17.
- \_\_\_\_\_, 『문법을 의(宜)통일』, 『기호흥학회보』 5, 1908.12.25.
- \_\_\_\_\_, 『조선상고사』, 단재신체호전집편찬위원회 편, 『단재신체호전집』 1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a.
- \_\_\_\_\_, 『조선사연구초』, 단재신체호전집편찬위원회 편, 『단재신체호전집』 2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b.
- \_\_\_\_\_, 『독사신론』, 단재신체호전집편찬위원회 편, 『단재신체호전집』 3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c.
- 안 환, 『조선어의 가치』, 『학지광』 3호, 1915.2
- \_\_\_\_\_, 『조선어 원론』, 『조선문학사』, 한일서점, 1922.
- 주시경, 『必尙自國文言』, 『황성신문』, 1907.4.1.~6.
- 최남선, 『계고차존』, 『청춘』 14호, 1918.6.16.
- 최남선, 전성근 옮김, 『불함문화론, 살만교차기』, 경인문화사, 2013.
- 김방한, 『한국어의 계통』, 민음사, 1993.
- 김병문, 『‘국어의 사상’을 넘어선다는 것에 대하여』, 소명출판, 2019.
- 남풍현, 『차자표기법연구』, 단대출판부, 1981.
- 송기중, 『역사비교언어학과 국어계통론』, 집문당, 2004.
- 스테판 다니카, 박영재·함동주 옮김, 『일본 동양학의 구조』, 문학과지성사, 2004.
- 이기문, 『국어사개설(개정판)』, 탑출판사, 1972.
- \_\_\_\_\_, 『한국어형성사』, 삼성미술문화재단, 1981.
- 이만열, 『단재 신체호의 역사학 연구』, 문학과지성사, 1990.
- 이성시, 박경희 옮김, 『투쟁의 장으로서의 고대사』, 삼인, 2019.
- 이승녕, 『신라 시대의 표기법 체계에 대한 시론』, 탑출판사, 1972.
- 김병문, 『근대계몽기 ‘국문론’의 양상과 새로운 주체 형성의 문제에 대하여』, 『어문연구』 47,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9, 91~115쪽.
- \_\_\_\_\_, 『최남선의 「不咸文化論」을 통해 본 고대사 만들기과 역사비교 언어학의 관계』, 『대동문화연구』 110, 대동문화연구원, 2020, 329~358쪽.
- 김형규, 『삼국사기』의 지명고, 『진단학보』 16, 진단학회, 1949, 171~181쪽
- 남풍현, 『심익 이승녕 선생의 차자표기 자료 연구』, 『이승녕 현대국어학의 개척자』, 태학사, 2008
- 박재민, 『항가 해독 100년의 연구사 및 전망』, 『한국시가연구』 45, 한국시가학회, 2018, 49~113쪽.
- 이기문, 『언어 자료로서 본 『삼국사기』』, 『진단학보』 38, 1974, 211~216
- 이상혁, 『근대 초기 영문 잡지에 나타난 서양인의 ‘조선어’ 인식에 대하여 - *The Korean Repository, The Korean Review*를 중심으로』, 『한국인물사연구』 25, 한국인물사연구회, 2016, 185~212쪽.

이승재, 『차자표기의 변화』, 국어사연구회, 『국어사연구』, 태학사, 1997.

이희승, 『지명연구의 필요』, 『한글』 1-2, 조선어학회, 1932, 45~49쪽.

조재형, 『고조선 지명 ‘泚水’에 대한 고찰 - 언어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지명학』 26, 한국지명학회, 2017, 253~285쪽.

# Review of the Linguistic Methodologies Used by Shin Chae-ho in the Narrative of Ancient History

– Focusing on *JoseonsaYeongucho* and *JoseonSanggosa* –

Kim, Byungmoon\*

Shin Chae-ho identified the question of “whether to write in Korean or Chinese characters” as “whether to become a master or a slave” and viewed that we lost “national essence(國粹)” and “national spirit(國魂)” because we only read Chinese history books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Therefore, the direction of historical narrative he pursued was to restore the unique spirit of Joseon before it was polluted by China and Chinese characters and eventually to reach the mastership by breaking free of the state of spiritual slavery. However, the efforts to find the uniqueness of Joseon before it was polluted by China and Chinese characters were faced with a major obstacle from the start because of the fact that all the historical records he had access to was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Shin Chae-ho introduced a methodology that interpreted all the names of people, regions, nations and government posts in ancient history with “Idu” especially after the mid-1920s. It is a method of restoring the native language through Chinese characters instead of reading Chinese characters in Chinese characters. And that methodology is also directly linked to the systematic theory of the Korean language, which was actively

---

\* Institute for the Study of Korean Modernity, Yonsei University

discussed at the time. One of the decisive changes in *JoseonSanggosa*(1931) from *DoksaSinron*(1908) was the use of linguistic methodologies.

This study examines how Shin Chae-ho used linguistic methodologies in historical narrative, especially after the mid-1920s, such as *JoseonSanggosa* and *JoseonsaYeongucho*. The linguistic methodologies he used can be divided into the one based on the comparative linguistics of the Korean language and the other using his unique “Idu” interpretation method of Chinese characters. This study also looks into how each of them relates to Korean studies of the time or later.

**Key words**: Shin Chae-ho, Korean characters, Chinese characters, *JoseonsaYeongucho*, *JoseonSanggosa*, the Linguistic Methodologies, “Idu”